Trust
Talent
Tenacity
Togetherness

09-36 (통권 365호)
2009.9.11.

經濟週評

글로벌 경제 위기와 한국 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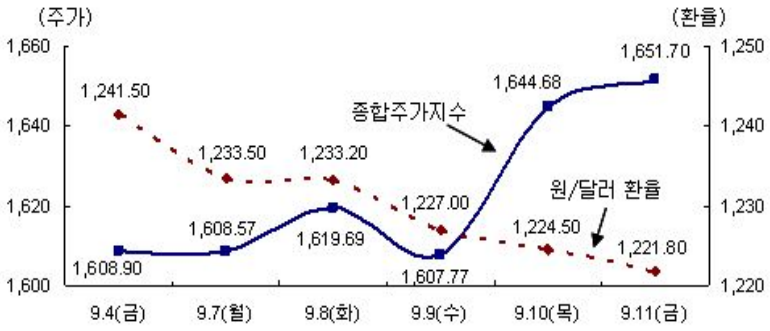
■ 최근 환율 하락의 원인과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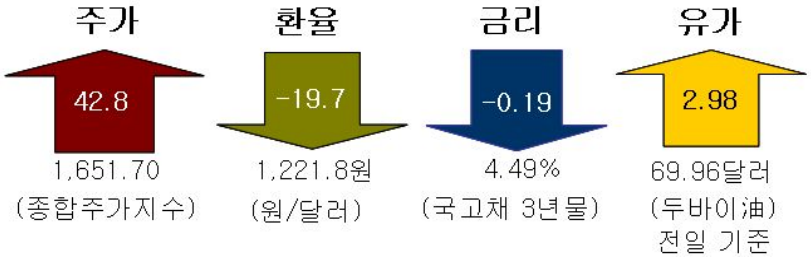
-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은 원화 환율

現代經濟研究院
HYUNDAI RESEARCH INSTITUTE

Better than
the Best!

週間 主要 經濟 指標 (9.4~9.11)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1

□ 최근 환율 하락의 원인과 전망

-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은 원화 환율 1

주간 경제 동향 12

□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 괄 : 유 병 규 경제연구본부장 (3669-4032, bkyoo@hri.co.kr)
□ 금 융 경 제 실 : 현 석 원 연 구 위 원 (3669-4024, kyotohyun@hri.co.kr)
: 조 호 정 연 구 원 (3669-4047, chjss@hri.co.kr)
: 허 지 은 연 구 원 (3669-4131, me-2@hri.co.kr)

Executive Summary

□ 최근 환율 하락의 원인과 전망 -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은 원화 환율

(최근 원/달러 환율 동향) 원/달러 환율은 금년 3월에 들어 1,570.3원까지 상승한 이후, 4월 30일 1,200원 대로 하락하였다. 원/달러 환율은 9월 11일 현재 1,221.8원을 기록하며 전고점인 3월 2일 1,570.3원 대비 22.2%나 통화 가치가 상승했다.

(원/달러 하락의 배경) **공급 측면에서 보면, 우선** 정부는 2009년 초 외화유동성 부족 사태를 통화스왑에 의한 자금 공급을 통해 환율의 추가 급등을 막았다. **둘째,** 2009년 상반기 경상수지 흑자는 217억 달러로 외환위기 이후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셋째,** 외국인순매수액은 2009년에 들어 9월 7일 현재까지 21조 원(약 165억 달러)에 달하여 2008년 연중 33조 원(약 304억 달러) 유출된 금액의 상당 부분이 유입되었다. **넷째,** 달러화 차입 여건이 완화되면서 공기업의 해외채권 발행이 증가했다. **수요 측면에서 보면, 첫째,** 상품수입이 2009년 1월 이후 30%대의 높은 감소율을 기록하여 외환 수요가 축소되었다. **둘째,** 해외 여행 감소 역시 외환 수요 증가를 억제하는 요인이 되었다. **셋째,** 단기 차입금 차환율이 2008년 4/4분기 50%에서 2009년 상반기 99.0%로 회복됨으로써 부채 상환용 달러 수요가 감소했다. **넷째,**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약화되면서 달러가 약세를 보였다.

(추가 하락 가능성 평가) **경제위기 시 환율 급등, 세계적으로 빠른 국내 경기 회복세, 큰 폭의 경상수지 흑자 유지 등으로 원화 환율은 실질실효환율 상으로 아직 추가 하락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각 기관의 실질실효환율 분석에 따르면, 원화 환율은 현재 여건이 지속된다면 13~18%정도 추가 하락 요인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우선 국제결제은행(BIS)에 의한 실질실효환율지수는 2009년 7월 한국 80.0, 미국 98.3으로 달러화 대비 원화는 18% 추가 하락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정한 실질실효환율지수에 의하면 2009년 8월 한국 77.8, 미국 93.5로 원화는 달러 대비 16%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한편 자체 추정한 실질실효환율에 따르면, 2009년 7월 실질실효환율지수는 113.6으로 원화 환율은 13% 추가 하락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해 보면, 실질실효환율지수상 원화 환율은 13~18%까지 하락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과제) **향후 원/달러 환율은 경상수지 흑자와 외국인 순매수 지속 등으로 하락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원화 환율의 급속한 하락은 수출 경쟁력 약화, 기업 채산성 악화, 환차손 리스크 증대와 같은 부작용을 초래한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는 환율의 급변동 방지를 위한 미세 조정 정책을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 **둘째,** 기업들은 R&D 투자 등을 통해 제품의 비가격 경쟁력을 제고하여 수출 경쟁력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환변동보험제도 등을 활성화해 환차손의 리스크를 줄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 최근 환율 하락의 원인과 전망 >

최근 원/달러 환율 변화의 특징

원/달러 환율 변동폭 확대	- 원/달러 환율은 9월 11일 현재 1,221.8원으로 전고점대비 22.2% 가치 상승 · 금년 3월에 들어 1,570원까지 상승한 이후, 4월 30일 1,209원대로 하락
원/달러 하락 배경	- (공급 측면) 정부의 통화스왑 공급, 경상수지 큰 폭의 흑자, 주식시장 외국인순매수, 달러화 차입 여건 완화 - (수요 측면) 상품 수입의 큰 폭 축소, 해외 여행 감소, 단기 차입금 차환율 회복, 달러에 대한 안전자산 선호 현상 약화

추가 하락 가능성 평가

추가 하락 가능성 배경	- 경제위기 시 환율 급등, 세계적으로 빠른 국내 경기 회복세, 큰 폭의 경상수지 흑자 유지 등을 고려할 때 추가 하락 요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
실질실효환율 상 예상 하락율	- BIS의 2009년 7월 27개국 기준 실질실효환율지수는 한국 80.0, 미국 98.3으로 원화 환율은 추가적으로 18% 하락 가능성 내재 - OECD의 경우, 2009년 8월 46개국 기준 실질실효환율지수는 한국 77.8, 미국 93.5로 원화는 달러화 대비 16% 추가 하락 요인 존재 - 자체 추정한 실질실효환율지수는 2009년 7월 113.6으로 기준점인 100보다 높아 원화 환율은 13%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음

전망 및 과제

전망	- 향후 원/달러 환율은 경상수지 흑자, 외국인 순매수 지속 등으로 하락세가 이어질 전망
과제	- 환율의 급변동 방지를 위한 미세 조정 - 기업의 R&D 투자 증대 등을 통한 비가격경쟁력 제고 - 환위험 리스크 축소를 위한 환변동보험제도 등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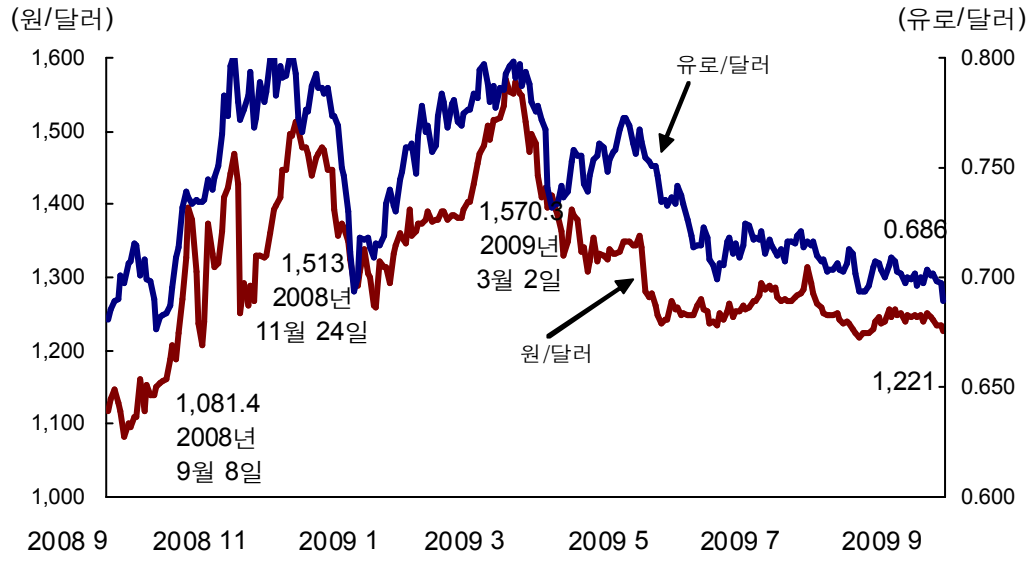
1. 최근 원/달러 환율 동향

○ 원/달러 환율은 3월 이후 하락세로 전환한 후, 4월 30일 1,200원 대로 진입하였고 9월 11일 현재 1,221원을 기록

- 원/달러 환율은 지난 3월 2일 1570.3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으나, 최근 1,250원 대를 전후로 등락을 거듭하고 있음
  - 원/달러 환율은 2009년 9월 11일 현재 1,221원을 기록하며 전고점 대비 22.2% 절상됨

- 유로/달러 환율은 지난 3월 4일 달러당 0.798유로까지 상승하며 달러 강세를 보였으나 9월 11일 달러당 0.686유로까지 떨어져 달러 약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이는 전고점 대비 13.6% 달러 절하된 것으로 미국 경기가 저점을 통과하며 달러에 대한 안전선호 현상이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 원/달러 및 유로/달러 환율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2. 환율 하락의 원인

1) 공급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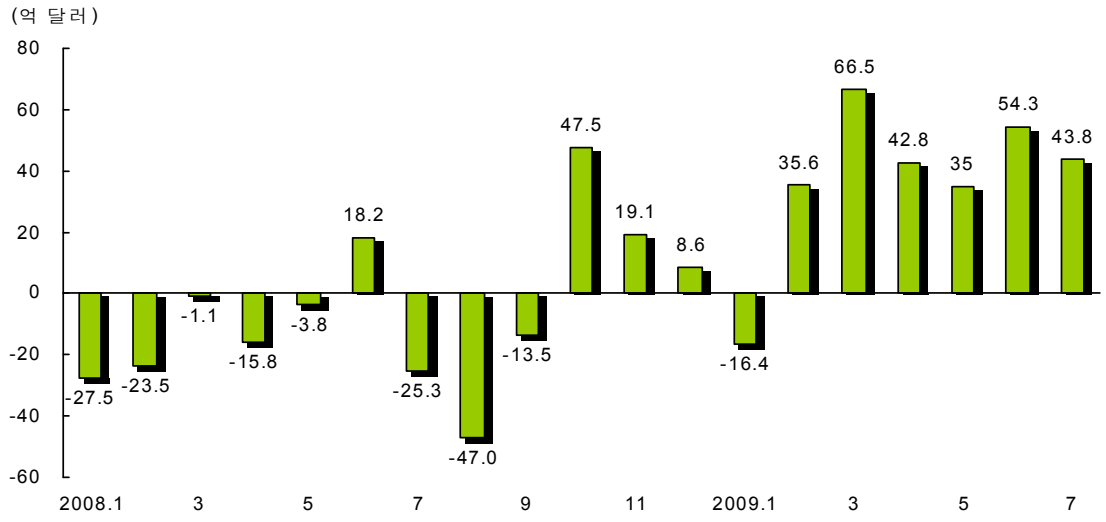
○ (외화유동성 공급) 정부는 외화유동성 부족을 겪는 금융기관에 대해 미국과의 통화스왑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환율 상승을 제어

- 미 연준과의 통화스왑 자금을 활용하여 2008년 12월 2일부터 2009년 1월 20일까지 5차례에 걸쳐 163.5억 달러를 공급
  · 환율이 3월 이후 하락세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2009년 3월 17일부터 7월 7일까지 점진적으로 회수함으로써, 9월 1일 현재 잔액은 46억 달러로 추정됨

○ (경상수지 흑자) 경상수지 흑자 지속이 원/달러 하락의 주요 원인임

- 2009년 2월부터 경상수지 흑자로 인해 달러 유입이 크게 확대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하락세에 놓임
  · 2009년 상반기 경상수지 흑자 금액은 217억 달러에 달했고 하반기에도 흑자폭은 감소할 것이지만 경상수지 흑자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원/달러 환율 하락 추세는 이어질 것임

< 경상수지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외국인투자자금 유입) 주식시장에 있어 외국인순매수세가 강하게 나타남에 따라 달러 유입이 지속되고 있음**

- 외국인의 주식 순매수가 우세로 국내 달러 공급이 증가
  - 이에 따라 주식시장은 2008년 11월 20일 948까지 하락했던 코스피 지수는 2009년 9월 9일 현재 1,607까지 회복
  - 코스피시장에서 외국인 순매도는 2008년 33조 6,034억 원(약 304억 달러)에 달했으나, 2009년에 들어 7월말까지 21조 8,943억 원(약 165억 달러)에 이르고 있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빠져나간 외국 자금의 65% 수준으로 회복

< 외국인 주식투자 순매수 추이 >

구분	2007년	2008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1~8월
외국인 순매수(조원)	-33.6	0.7	-0.9	1.3	4.2	4.1	2.5	5.9	4.0	21.9
KOSPI (월말)	1,124	1,162	1,063	1,206	1,369	1,395	1,390	1,557	1,591	-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시장동향 일일자료.

- 한편, 2009년 6월말 은행간 현물환 시장의 일평균 외환거래 규모는 72억 달러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9월말 90.6억 달러에 근사하고 있어 급등락 가능성은 낮아질 것으로 보임
  - 달러 유동성 문제로 인해 거래량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80~90억 달러에서 금융위기 이후 30~40억 달러로 급감

< 외환거래량 규모 추이 >

	2008						2009					
	7말	8말	9말	10말	11말	12말	1말	2말	3말	4말	5말	6말
외환 거래량	82.6	81.2	90.6	43.4	32.2	37.6	50.7	47.7	44.9	53.4	65.1	72.0

자료 : 한국은행 「각 분기 외환동향」.

○ **(공기업 채권 발행 여건 완화) 달러화 차입 여건이 완화되면서 공기업의 채권 발행이 성공함으로써 달러 공급이 원활해짐**

- 한국의 5년물 국고채 CDS 프리미엄은 리먼브라더스 파산 당시보다 낮은 수준으로까지 하락
  · 리먼브라더스가 파산 이전인 2008년 9월 12일 135bp에서 10월 27일 699bp로 4.4배나 상승했으나 2009년 9월 10일 현재 123bp로 리먼브라더스 파산 당시보다 8p 하락함

< CDS 프리미엄 추이 >

자료 : 국제금융센터.

- 공기업의 해외채권 발행 성공에 따르는 달러 공급으로 거주자 외화예금 증가
  · 상반기 한국수력원자력 10억 달러, 한국가스공사 5억 달러, 한국전력 5억 달러, 한국석유공사 2.7억 달러 등 채권 발행
  · 2009년 7월말 거주자 외화예금 잔액은 312.5억 달러로 전년말 대비 48.6억 달러 증가하였으며, 거주자 외화예금이 가장 낮았던 2009년 2월말 244.4억 달러 대비 68억 달러 늘어난 규모임
  · 특히 6월과 7월 중 증가한 액수는 45.2억 달러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6월 이후 공기업의 해외채권 발행을 통한 외화자금 조달이 본격화되었기 때문
  · 또한 2009년 상반기 국내은행의 중장기 차입 실적은 140.2억 달러로 2008년 하반기 48.5억 달러 대비 189% 증가

< 거주자 외화예금 추이 >

	2007	2008	2009						
	12말	12말	1말	2말	3말	4말	5말	6말	7말
거주자 외화예금 (억 달러)	212.5	263.9	260.4	244.4	259.2	258.2	267.3	282.7	312.5

자료 : 한국은행, 「최근 거주자외화예금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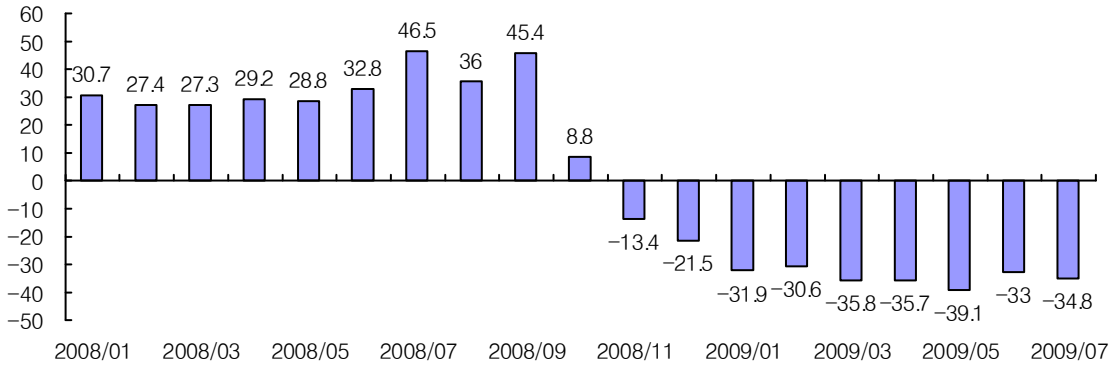
- 한편, 해외 교포들의 상반기 원/달러 환율 하락을 배경으로 국내 부동산 구입을 위한 투자가 증가함으로써 달러 유입 확대
  · 2008년 상반기의 경우, 자본이전수지는 3.6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으나, 2009년 상반기는 10.1억 달러 흑자를 기록

3) 수요 요인

○ (수입 결제 수요 하락) 국내 경제 침체로 인한 상품 수입 축소는 달러에 대한 수요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임

- 수입 감소폭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으로 말미암아 기업들의 달러 수요가 축소
  · 2008년 11월 감소세로 전환한 상품수입 증가율은 2009년 1월 이후 30%대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
  · 이에 따라 수입대금 지급 결제를 위한 기업들의 달러 수요가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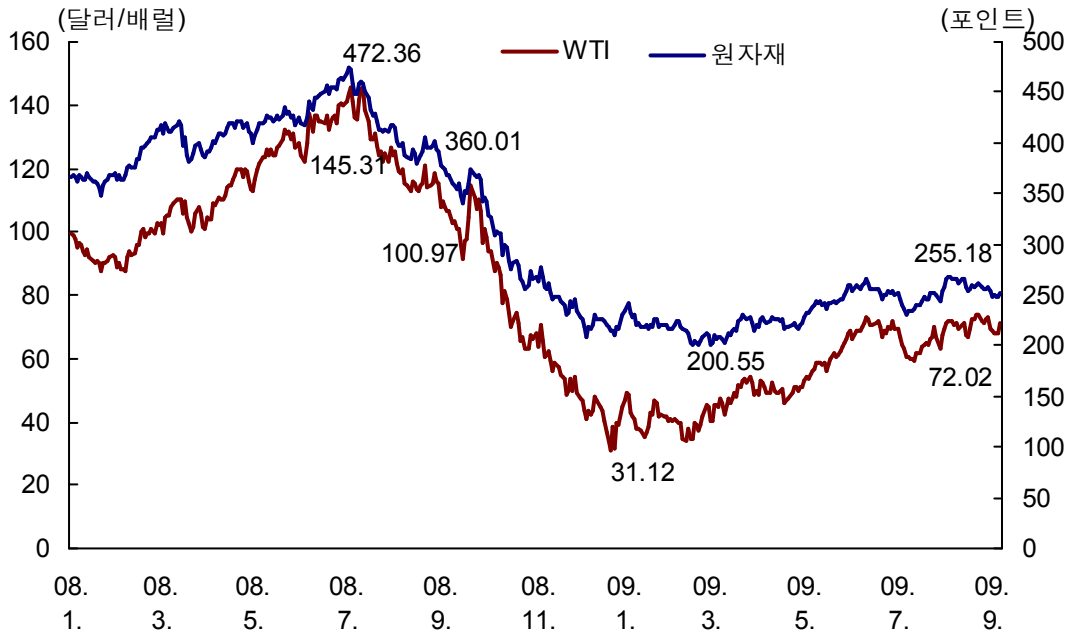
< 상품수입 증가율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최근 원자재 가격이 상승세에 있으나 작년 글로벌 위기 당시에 비해 75%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수입 감소에 큰 기여
  · 원자재 가격지수의 경우, 작년 9월 12일 360.01에서 200.55까지 급락, 상승세로 전환하였으나 9월 10일 255.18로 여전히 작년 최고치 대비 73% 수준임
  · 석유가격 또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는 작년 9월 12일 100.97달러에서 31.12달러까지 급락한 이후, 상승세를 나타내 9월 10일 현재 72.02달러 기록. 이는 글로벌 위기 당시 대비 75% 수준이며 최고점 대비 49%임

< 원자재 및 석유 가격 추이 >



○ (해외 여행 둔화) 달러 급등에 따라 해외 여행이 감소하였고 이로 인해 달러 수요가 감소

- 관광공사에 따르면, 2009년 상반기 해외 출국자수는 447만 명으로 31.9% 감소한 반면, 외래관광객 입국자수는 전년동기대비 15.3% 증가한 379만 명임
  · 월별로는 해외 출국자수는 1~6월 27~38% 감소했으며 외래관광객 입국자수는 1~4월 20% 이상 증가율을 보임

· 여행수지는 2009년 2/4분기에 적자로 전환되었으나 금융위기 이전 2008년 2/4분기 대비 17억 달러 가량 적자 폭이 축소

< 서비스수지 및 여행수지 추이 >

	2008년				2009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여행수지 (억달러)	-30.2	-27.7	-29.7	7.1	5.2	-10.7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단기 차입 차환율 상승) 국내 은행의 기간물 차환율이 99%를 기록, 리먼 브러더스 파산 이후 2008년 4/4분기 대비 급등함으로 달러 수요 급감

- 2008년 3/4분기 99.8%의 만기 2일~1년 이내 차입금의 차환율이 4/4분기 50.1%로 하락한 이후, 2009년 상반기 99.0%로 급등
  · 대부분의 단기 차입금이 차환됨에 따라 추가적인 달러 수요가 발생하지 않게 됨

< 국내은행 기간물 차환율 추이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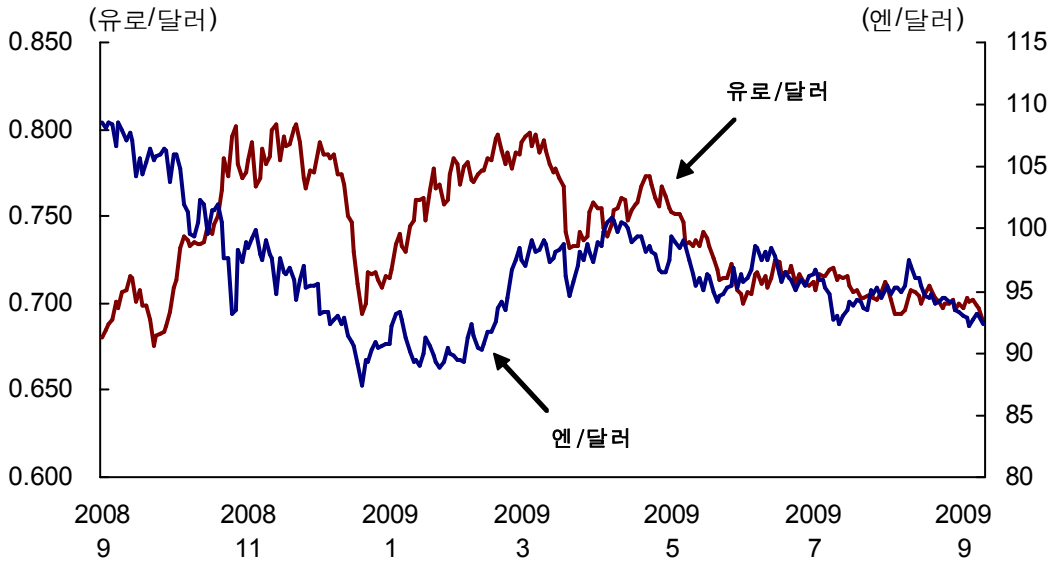
	08년	08년上	08년下	3분기	4분기	09년上	1분기	2분기
기간물 차환율	86.6	97.6	75.0	99.8	50.1	99.0	94.0	105.0

자료 : 금감원 「2009년 상반기중 국내은행 외화유동성 현황」에서 재인용.
주 : 1) 금액은 모두 해당기간 평균.
2) 외국계(SC제일, 한국씨티) 제외, 정부 및 한은공급분 제외 기준.
3) 만기 2일~1년 이내 차입금.

○ (글로벌 달러 가치 약세) 경기 침체에 따른 안전 자산 선호 현상으로 강세를 보였던 달러화가 최근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와 함께 약세를 보임

- 원화가 3월 2일 1,570원까지 강세를 보이던 때, 달러화는 달러당 0.793유로에서 9월 11일 현재 0.686유로로 13.5% 가치가 하락
  - 이는 작년 리먼브러더스 이전 9월 12일 달러당 0.715유로보다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 것임
  - 엔 대비 달러의 경우에도 4월 7일 달러당 100.85엔까지 강세를 보였으나, 9월 11일 91.7엔으로 9.1% 약세를 나타냄
  - 2009년 들어 3월 9일 86.1까지 상승했던 달러 인덱스(nominal major currencies dollar index)는 3월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주요통화 대비 약세로 전환되었고, 9월 8일 74.8까지 떨어짐

< 유로/달러 및 엔/달러 환율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3. 추가 하락 가능성 평가[1)]

○ 경제위기 시 환율 급등, 세계적으로 빠른 국내 경기 회복세, 큰 폭의 경상수지 흑자 유지 등으로 원화 환율 추가 하락 가능성 내재

- 2009년 6월 국내 환율은 전년동월대비 21.5% 환율이 상승한 상태

- OECD 선행지수로 살펴볼 때, 한국은 2009년 6월 기준 100.7로 유로지역, 중국, 미국, 일본에 비해 회복속도가 빠른 것으로 나타남

- 2009년 1월부터 7월까지 경상수지 흑자는 261.4억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 -78억 달러에 비해 339억 달러 증가

○ 각 기관의 실질실효환율 분석에 따르면, 원화 환율은 현재 여건이 지속된다면 13.6~18.7%정도 추가 하락 요인이 있는 것으로 평가

- **(BIS 발표)** 국제결제은행(BIS)에 의한 실질실효환율지수는 2009년 7월 한국 80.0, 미국 98.3으로 달러화 대비 원화는 18.7% 추가 하락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2)]

- **(OECD 발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정한 실질실효환율지수에 의하면 2009년 8월 한국 77.8, 미국 93.5로 원화는 달러 대비 16.8%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존재[3)]

- **(HRI 추정)** 현대경제연구원이 자체 추정한 실질실효환율에 따르면, 2009년 7월 실질실효환율지수는 113.6으로 원화 환율은 13.6% 추가 하락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4)]

---

1) 실질실효환율지수는 교역 대상국, 가중치 적용방법, 기준년도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음.
2) BIS는 2005년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교역량을 변동 가중치로 적용하여 27개국의 국별 실질실효환율을 산출.
3) OECD의 경우, 2005년을 기준으로 당해 연도 교역량을 변동 가중치로 적용하여 46개국의 국별 실질실효환율을 산출.
4) 1995년부터 2009년 7월까지의 주요 교역국 6개국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1995년 이후 경상수지 균형에 가장 근접한 시점인 1995년을 기준 시점으로 삼음.

4. 전망과 과제

1) 전망

○ 향후 원/달러 환율은 경상수지 흑자와 외국인 순매수 지속 등으로 하락세가 이어질 전망. 그러나 하락 속도는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

- 공급 측면에서는 달러 공급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 경상수지 흑자와 외국인 순매수세는 지속되나 규모는 축소될 것임
  · 최근 시중 금리가 상승하고 있어 달러 유입 확대에 따른 환율 하락 가능성도 상존

- 수요 측면에서는 달러 수요가 증가하여 달러 하락 제한 요인으로 작용
  · 글로벌 경기 회복세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 수입 증가로 인해 달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임

- 정책 측면에서는 잔여 외화유동성을 흡수하는 것도 달러 하락을 제한
  · 추가적으로 한국은행의 외화유동성 흡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이로 인해 달러 하락세를 완화시킬 것으로 보임

○ 주요 투자은행들의 전망을 보면, 2009년 4/4분기말은 1,125원으로 예상

- 주요 투자은행들의 전망치에 따르면, 2009년 4/4분기말 원/달러 환율은 최소 1,050원에서 최대 1,150원으로 움직일 것으로 예상

< 주요 투자은행 전망 >

전망기관	2009	2010	
	4/4분기말	1/4분기말	2/4분기말
BNP 파리바(9.8)	1,150	1,120	1,090
스탠더드차티드(9.8)	1,150	1,180	1,150
뱅크오브어메리카(9.4)	1,050	1,100	1,100
모건스탠리(9.3)	1,150	1,138	1,125
평균	1,125	1,135	1,116

자료 : 블룸버그.

2) 과제

○ 환율 하락으로 인한 문제점을 완화하도록, 정부의 과도한 하락 방지를 위한 미세 조정, 비가격 경쟁력 제고, 환변동보험제도 활용 등의 노력이 필요

- 원화 환율의 급속한 하락은 수출 경쟁력 약화, 기업 채산성 악화, 환차손 리스크 증대와 같은 부작용을 초래

- 이러한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는 환율의 급변동 방지를 위한 미세조정(Smoothing Operation)이 필요
  · 최근과 같이 환율이 하락할 경우, 정책 당국은 미세 조정을 통해 원/달러 환율의 급락에 대한 심리를 해소

- 기업들의 R&D 투자를 통해 비가격 경쟁력 제고
  · 기업들은 환율 가치 상승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R&D 투자 증대를 통해 가격 변화에 비탄력적인 제품 생산을 확대해야 함

- 환위험 리스크 축소를 위한 환변동보험제도 활용
  · 환변동보험제도 등 활성화해 환율 하락으로 인한 환차손의 리스크를 줄이도록 노력

현석원 연구위원외 (kyotohyun@hri.co.kr, 3669-4024)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 국내외 성장률 추이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09(E)
				1/4	2/4	3/4	4/4	1/4	2/4	
미국	2.7	2.1	0.4	-0.7	1.5	-2.7	-5.4	-6.4	-1.0	-2.6
EU	2.9	2.7	0.7	0.7	-0.3	-0.4	-1.8	-2.5	-0.1	-4.8
일본	2.0	2.3	-0.7	4.0	-4.3	-3.9	-13.1	-11.7	3.7	-6.0
중국	11.6	13.0	9.0	10.6	10.1	9.0	6.8	6.1	7.9	7.5
한국	5.2	5.1	2.2	5.5	4.3	3.1	-3.4	-4.2	-2.2	-3.0

주 1) : 2008년, 2009년 1/4분기 자료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잠정치(P), 2009년 전망치(E)는 IMF 2009년 7월 기준임.
2) : 미국, 일본은 전기대비 연율, EU는 전기대비, 중국, 한국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임.

□ 국제 금융 지표

구분		2007년 말	2008년 말	2009년				
				3월말	6월말	9월 4일	9월 11일	전주비
해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4.02	2.21	2.66	3.54	3.44	3.35	-0.09%p
	엔/달러	112.58	90.22	97.34	96.14	93.14	91.74	-1.40￥
	달러/유로	1.4722	1.4125	1.3190	1.4083	1.4316	1.4579	0.0263$
	다우존스지수	13,265	8,776	7,609	8,447	9,345	9,627	282p
	닛케이지수	15,380	8,860	8,110	9,958	10,187	10,514	327p
국내	국고채 3년물 금리	5.74	3.41	3.94	4.16	4.30	4.52	0.22%p
	원/달러	936.1	1,259.5	1,383.5	1,273.9	1,241.5	1,221.8	-19.7원
	코스피지수	1,897.1	1,124.5	1,206.3	1,390.1	1,608.9	1,651.7	42.8p

주 : 9월 11일 해외 지표는 전일(9월 10일) 기준임.

□ 해외 원자재 가격 지표

구분		2007년 말	2008년 말	2009년				
				3월말	6월말	9월 4일	9월 11일	전주비
국제 유가	WTI	95.97	44.61	49.65	69.08	67.89	72.02	4.13$
	Dubai	89.30	36.45	46.80	71.85	66.98	69.96	2.98$
CRB선물지수		358.71	229.54	220.40	249.96	248.74	255.18	6.44p

1) CRB지수는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곡물, 원유, 산업용원자재, 귀금속 등의 주요 21개 주요 상품선물 가격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지수로 원자재 가격의 국제기준으로 간주됨.